

복잡한 연말정산 신고 내년부터 손 쉬워진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입력 항목 너무 복잡” 불만 정부 3월말까지 신고절차 간소화 개선안 마련 발표

정부가 납세자들이 내년 연말정산은 올해보다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되면서 연말정산 입력 항목이 복잡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의 간편화 방안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올해 연말정산이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많아 좀 더 간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하려 한다”며 “납세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보완책 중 하나로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연말정산이 예년보다 복잡해진 것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을 영향이 크다.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 사용액보다 50% 이상을 늘려야 하는 등 추가 공제 적용 조건이 있어 작년 사용액뿐 아니라 제작된 사용액까지 제출해야 해 입력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를 한시적 인상 적용 기간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여서 내년 연말정산에도 추가 입력 항목은 계속 유지된다. 올해에는 지난해 하반기 추가공제율 사용액을 입력해야 하는 것처럼 내년에는 올해 상반기 추가공제율 사용액을

입력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납세자들이 이 부분의 불편함을 지적한 만큼, 내년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을 좀 더 손쉽게 계산·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유관 부처들은 협의의 통해 연말정산 신고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3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로 연말정산 내역을 정리해 통보하면 국민이 확인해 보완·제출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인 간편화가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정부가 연말정산 신고서 초안을 작성한 뒤 납세자가 기부금 등 일부 정보를 직접 추가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쉽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내역 등을 일일이 납세자가 신고서에 옮겨 적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 방법의 경우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늘어나고 오류 등이 발생하면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방법이 부부 중 자녀 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할지 등 연말정산 과정 중 사례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결정해야 하는 사안도 상당수여서 일괄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관련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한 뒤 신고서 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유럽 양적완화 호재에 반등 성공한 코스피 그리스 총선·실적 ‘암초’

유럽중앙은행(ECB)의 대규모 양적완화(QE) 시행 소식에 그동안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했다.

23일 코스피 지수는 그리스 조기 총선과 국내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되었지만 전날 대비 15.27포인트(0.79%) 오른 1936.0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지수가 1,930선을 회복한 것은 종가기준으로 지난해 12월26일 이후 처음이다.

ECB의 양적완화는 올해 3월부터 2016년 9월 까지 19개월간 매월 600억유로(75조5000억원)의 자산매입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총 매입 규모는 1조1400억유로(1435조원)에 이른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최소 규모인 5000억유로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그동안 유로존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에 확산됐던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살아나면서 국내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리스 총선 결과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국제유가, 그리고 국내기업의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되고 있어 큰 폭의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총선은 25일 실시된다. 현재까지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그리스 제1야당 시리자(SYRIZA·급진좌파연합의 약자)가 집권할 경우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다는 ‘그렉시트(Grexit·Greece와 Exit의 합성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리스 총선 출구 조사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26일 월요일 오전 2시 나을 예정이다.

이로인해 그리스 경제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리스 은행에서 지난 19일부터 3일 동안 45억유로(약 5조5,000억원)가 빠져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총선 결과 시리자가 제1야당이 되더라도 시리자의 예상 의석수는 150석이하로 시리자가 단독정부를 구성할 수 없어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보다는 긴축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투자전략으로는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인하여 제한적인 상승에 머무르겠다. ECB 양적완화조치는 긍정적이지만 유럽이 돈을 풀어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2분기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어 지수관련주에 대한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스 총선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실적호전주 및 개별 테마종목에 대한 기술적인 매매에 국한해야 하겠다.



김경신
NH투자증권
수원지점 부장

부부 노후자금 평균 4억 보건연구 추산...매달 153만원 필요

은퇴 후 사망시 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약 4억여원 가량 된다는 추산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은퇴 후 사망시점까지 소비를 충당하는데 평균적으로 4억322만원의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매달 153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연구진은 1998~2012년 가구주(27~59세)를 대상으로 각 연도의 소비지출수준을 추정하고 이를 201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해 합산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가구주 가구는 4억1544만원, 여성가구주 가구는 3억2449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상위 10%)는 6억658만1000원, 소득 9분위는 4억8862만원이 필요했다.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하위 10%)는 2억1933만원, 소득 2분위는 2억8319만4000원 등이 필요해 소득수준별 격차가 컸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는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은 1억9943만원으로 월평균 69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0년 기준 노인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인 81만9000원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골드바

金테크 열풍

저금리에 골드바 판매 작년 2배
선물·액세서리도 금제품 인기



금 캐네이션

저금리 속에 ‘금(金)테크’가 눈길을 끌면서 소장용 골드바뿐만 아니라 선물용 금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도 늘고 있다.

25일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www.gmarket.co.kr)에 따르면 최근 한 달(2014년 12월 22일~2015년 1월 21일)동안 순금 제품과 골드바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로(98%) 늘었다.

G마켓 전체 보석·시계류 베스트셀러에는 24K 순금 골드바(3.75g/19만4000원·이하 금 시세는 22일 기준), 24K 순금 돌반지(3.75g/19만6000원) 등이 상위 5위를 올렸다.

골드바 인기가 더불어 순은 제품과 실버바 판매도 38% 증가했다.

특히 골드바와 실버바 외에 활짝 핀 장미 모습을 나타낸 ‘허브플라워 24K금장미’(5만2500원)나 ‘순금 캐네이션 브로치’(3만1500원) 등 이색 금 상품 판매도 같은 기간 109% 급증했다.

G마켓은 설을 앞두고 선물용 금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풀이하고 있다. 액세서리도 금 제품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

같은 기간 귀고리 판매는 86%, 목걸이 판매량은 14% 늘었다. 발목이 드러나는 옷차림 때문에 주로 여름철에 구매하는 발찌 판매량도 이 기간 90% 증가했다.

커플용 액세서리도 또한 14K와 18K 커플링 판매량이 이 기간 63% 증가했다.

G마켓 관계자는 “최근 ‘금테크’가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골드바 등의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설을 앞두고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으면서 선물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골드바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금거래소의 골드바 판매량은 지난 2013년 704kg의 두 배 가까운 1383kg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 달 판매량이 381kg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이달 판매량도 200kg 수준에 육박하는 등 두 달 사이 무려 600kg에 가까운 금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8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양치	266-7601
옹봉	522-7752
우산	512-8116
윤천	371-9818
원곡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8604
침월	673-1600
신단	973-2900
창평	224-8212
치평	376-6511
창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8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